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적극 추진해야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 증가 추세

비만인 성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연, 절주,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성인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만성질환 관련 건강행태, 영양, 구강건강, 정신건강, 손상관련 사고 안전의식 등 128개 건강지표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2018년부터는 비만율(실제계측), 수면의 질 저하율, 인지장애경험률이 신규 지표로 추가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만인 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 계측조사를 통해 확인한 비만율은 33.5%로 자가보고에 의한 비만율 3.18%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체중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걷기실천율은 42.9%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금연, 절주, 걷기 등을 모두 실천하는 건강생활실천율은 30.7%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흡연율은 21.7%, 남자 현재흡연율은 40.6%로 꾸준히 감소했다.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19.2%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5.0%였으며, 이번에 처음 도입된 50세 이상 성인의 인지장애경험률은 21.3%로 확인됐다.

성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7시간이었으며, 처음 도입된 수면의 질 저하율은 37.9%로 국민 10명 중 4명이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은 32.6%, 심폐소생술 마네킹 교육경험률은 28.3%로 2012년 대비 각각 15.6%p, 15.3%p 증가했다.

주 5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는 아침결식 예방인구비율은 63.8%로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건강한 식품을 고르는 영양표시 독해율은 25.6%로 큰 변동없이 증감을 반복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지역 간 건강격차의 원인 파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역사회가 보다 건강해지고 지역 간 건강격차가 감소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짐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취합·정리해 '2008-2018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통계집을 4월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통계집은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chs.cd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만성폐쇄성폐질환' 1등급 의료기관 증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꾸준한 외래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입원·응급실 경험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폐쇄성폐질환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를 통한 조기발견과 흡입기관지확장제 사용, 꾸준한 외래 진료를 통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이에 심평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 중증으로의 이환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4차 평가는 2017년 5월부터 1년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6379개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40세 이상 환자 14만5988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지속방문 환자비율이다.

평가결과 1년에 1회 이상 폐기능검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71.4%로 3차 평가보다 3.5%p, 1차 평가보다 12.7%p 증가됐다.

기도를 확장시켜 호흡곤란 등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제인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은 80.7%로 3차 평가보다 3.8%p, 1차 평가보다 12.8%p 향상됐다.

연 3회 이상 동일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꾸준히 진료 받은 지속방문 환자비율은 84.8%로 3차 평가(84.9%)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 대부분의 환자들이 같은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꾸준한 외래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입원과 응급실 방문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래에서 폐기능검사를 시행하거나 흡입기관지확장제를 처방 받은 환자들의 입원 경험률은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증가했다.

또한 같은 의료기관에서 외래를 3회 이상 지속 방문한 환자가 1~2회 방문한 환자보다 입원·응급실 경험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연간 방문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입원이나 응급실 이용이 더 크게 감소했다.

한편 연간 10명 이상 진료한 13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등급 평가에서는 371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아 3차 평가 대비 32개가 증가했다. 4~5등급은 351개 기관으로 3차 평가보다 106개가 줄었다. 종합점수는 평균 63.4점으로 3차 평가보다 2.5점, 1차 평가보다 9.5점 상승했다.

김승택 원장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평가 대상기관 중심으로 교육을 계획 중이며,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 변화를 위해 관련학회와 함께 '폐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경기도 수원시간호사회 총회 … 김혜경 회장 선출

경기도간호사회 산하 수원시간호사회는 제1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13일 열고 새 회장으로 김혜경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간호팀장을 선출했다.

수원시간호사회는 올해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특강 교육프로그램, 간호사 힐링 나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인 '수원시간호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사랑' '어르신 나들이 봉사' 등을 실시한다. 중소병원과의 유대 강화에 힘쓴다. 수원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급도 계속하기로 했다.

총회에는 김인자 경기도간호사회장이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모범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수원시장상=김혜경(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서영주(다인병원) 서은정(아주대병원) △경기도간호사회 모범상=권명희(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김순애(수원시보건소) △수원시간호사회 모범상=이복숙(동수원병원) 강선미(이춘택병원) 최진오(아주대병원) 송민재(윌스기념병원) 이수진(시온여성병원).

최유주 기자 yjchoi@

2021년까지 모든 MRI 건강보험 적용 추진

앞으로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3월 27일 행정예고했다. 오는 4월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50~72만원에서 16~26만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1522-1755

게 시 판

서울시간호사회 나이팅게일 캠프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는 2019년 나이팅게일 캠프를 총 6회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실시한다. 대상자별로 나눠 진행된다. △1차= 4월 29~30일, 중견간호사(10년 미만의 일반간호사) △2차= 5월 28~29일, 간호관리자 △3차= 6월 11~12일, 프리셉터 △4차= 7월 9~10일, 예비관리자(10~20년 미만의 일반간호사) △5차= 10월 15~16일, 간호관리자 △6차= 11월 19~20일, 프리셉터. 1차 캠프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na@seoulnurse.or.kr)로 4월 19일까지 접수. 선착순 40명 모집. 서울시간호사회 등록회원이면 참가할 수 있다. 2~6차 캠프 접수는 시작 한달 전 모집 예정. 문의 02)853-5497.

포 상

대구시간호사회 포상

대구시간호사회는 3월 26일 열린 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대구시장상= 유은주(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팀장) 전복순(대구보훈병원 간호실장) △대구시의회 의장상= 금혜숙(남산병원 간호부장) 이경미(천주성삼병원 간호과장) △대한간호협회장상= 백윤자(대구시 보건복지국장) △모범간호사상= 김미정(대구보건대병원 간호부장) 김미향(월배중학교 보건교사) 김순애(경북대병원 심사과장) 김연숙(대현첨단요양병원 간호과장) 김은희(계명대 동산의료원 수술간호팀장) 송영옥(칠곡가톨릭병원 간호과장) 안신영(대구가톨릭대병원 수간호사) 이명숙(영남대병원 수간호사) 이정희(칠곡경북대병원 수간호사) 이진형(대구파티마병원 수간호사).

경북간호사회 포상

경북간호사회는 3월 26일 열린 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대한간호협회장상= 송병숙(포항성모병원 간호부장) △경북도지사상= 박선애(경북과학대 간호학부장) 채선옥(서라벌대 간호학과장) △공로상= 안규자(전 경주시간호사회장) 홍성미(전 포항시간호사회장) 박선신(전 문경시간호사회장) 이명희(전 경산시간호사회장) 김문영(전 안동시간호사회장) 김경숙(전 영주시간호사회장) △모범간호사상= 금성희(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보건교사) 김인숙(안동성소병원 간호부장) 김현희(포항여성아이병원 간호팀장) 남지란(구미대 간호학과장) 문혜경(청도군 양원보건진료소장) 윤명숙(계명대 경주동산병원 간호팀장) 이미옥(인애가장수마을 간호팀장) 차윤희(포항세명기독병원 간호과장) 황국정(경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장) △감사장= 김영길(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 △우수분회상= 경산시간호사회.

전북간호사회 포상

전북간호사회는 3월 27일 열린 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전북도지사상= 이효실(예수병원 간호부장) △전북도의회 의장상= 최순선(김제시 심포보건진료소장) △대한간호협회장상= 소선녀(김제시 상정보건진료소장) △공로패= 신화자(전 전북간호사회장) △공로상= 강인숙(전 전북간호사회 임원) △모범간호사상= 강현주(원광대병원 외래수간호사) 이소현(전주병원 간호과장) 박수정(김제우석병원 수간호사) 황경순(전주시보건소) 전미숙(대불보건진료소장) 김영단(원광대병원 진료비심사팀) 이정자(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등학교 보건교사).

제주도간호사회 포상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는 3월 30일 열린 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대한간호협회장상= 오성자(전 제주도보건진료소장회장) △모범간호사 표창장= 송금숙(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보건교사) 허지연(한마음병원 수간호사) 강명내(서귀포의료원 수간호사) △모범간호봉사단 표창장= 홍경림(우도보건지소 간호사) 장은영(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간호사).

노인간호사회 포상

노인간호사회는 3월 23일 열린 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공로패= 오희영(대전·충청·세종노인간호사회장) △우수상= 대전·충남·세종노인간호사회, 서울시노인간호사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보건진료소장회 포상

보건진료소장회는 3월 29일 열린 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공로패= 문 자(경기도 화성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감사패= 이명수(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감사패= 정용래(대전시 유성구청장) △간호인상= 이정숙(강원도 춘천시 고탄보건진료소장) △봉사상= 이경아(충남 공주시 모란보건진료소장) △공로상= 김영신(전 경기도지회장) 이예숙(전 충북지회장) 김순찬(전 충남지회장) 소선녀(전 전북지회장) 오성자(전 제주지회장).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31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최다 합격자 + 임소문, 합격생이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 면허시험 간호사 국가고시 위생사 보건교사 임용고시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 · 모의고사 문제풀이반

대방열림고시학원 바로가기 QR코드
NAVER 진통카페 바로가기 QR코드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8길 4 신한헤스티아 2층 (영등포역 5번출구)

보건교사 특강
최신 동영상 강의 수강신청 및 접수중

노성신 기초간호과학 응급간호 학교성인질환 노인간호

오정화 아동간호 모성간호

김희영 지역사회간호 학교보건 정신간호
3人의 전공 · 전문교수진
▪ 간호직공무원, 간호사국가고시에서 검증완료된 전문교수진
▪ 최신 경향 집중 분석, 제대로 된 강의준비
▪ 10년 이상의 현장강의 경력 [현재 진행중]
▪ 경쟁교재 및 강의의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 수강료
보건교사 스터디 카페 바로가기 QR코드